

# 장휘국 “학생들 다시 시험 굴레 빠뜨리나” 장석웅 “창의토론, 기본지식 없으면 무용”

## 교육부 ‘기초학력 진단 의무화’

### 광주·전남교육감 다른 목소리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정부 대책을 둘러싸고 광주·전남 시도교육감 인식차가 뚜렷하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정부의 ‘모든 학생 기초학력 진단 의무화 방침’에 “학교 현장 의견을 무시한 대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교육청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광역시 단위 교육 현장과 농·어촌 지역 교육의 상황이 상이함에 따른 입장 차로 해석되고 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1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지난 주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초학력 부진 대응책을 접하고 같은 날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다들 우려했다”고 전했다.

장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국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적인 학력을 학교 교육으로 갖춰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에는 공감하지만, 또다시 학생들을 시험의 굴레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정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면서 ‘중고교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 교육감은 “일제고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와 유사한 시험은 학교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이 야기들을 (교육감들이) 했다”고 전했다.

장 교육감은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 대책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듯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수학을 너무 어렵게 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작년 수능도 불수능이란 말이 있듯이 의도와 관계없이 학생, 학부모들이 바짝 긴장해 학생들을 사교육에 몰아넣고 있다”며 “중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 미적분을 요구하면 90%가 기초학력 미달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과 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업 수준 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을 중시, 정부 방침에 대해 우회적으로 호응하는 입장이었다.

장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읍면 단위(학교)가 도시보다 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읍면 단위 학교 비율이 높은 전남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최근 창의적 학습, 토론 중심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 지식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점에서 기초학력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기초학력 부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부모님들은) 소중한 아이들이 학교에 맡겼다. 그래서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 제가 강조한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책임교육이었다. 책임교육 측면에서 기초학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며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달라. 주무과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전교조 출신의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두 교육감의 기초학력 문제와 관련한 엇갈린 대응을 두고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학생 가정의 경제적 형편, 학교 규모, 사교육 환경 등 광주·전남의 교육환경 차이가 뚜렷해 기초학력을 둘러싼 대응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효령복지타운 개원 9주년 공연 1일 오후 광주시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열린 개원 9주년 기념공연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흥겨운 음악을 들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일부 초등학교

### 이달 방과후 영어수업 재개

이르면 이달 중 광주·전남 일부 초등학교에서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일선 학교에 ‘공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 및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안’내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관련 법률이 시행돼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허용됐다고 알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 수요 조사를 거쳐 신속히 수업 개설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1·2학년 영어 수업과정은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문자 학습 위주가 아닌 놀이와 활동 위주로 구성하라고 안내했다. 수업 내용은 음성언어 중심으로 하고, 주당 5회 수업(수업당 40분) 이하로 초등 저학년 발달 수준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침을 줬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감사 확보가 마무리된 학교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이면 1·2학년을 위한 방과후 영어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도 최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내 조속히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를 개설해달라고 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개정·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김형호 기자 khh@

## 농관원, 학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원산지 속인 71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 급식 및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펼쳐 전남지역 식자재 납품업체 등 7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40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3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진행했다.

전남의 한 업체는 뉴질랜드산 단호박 10kg을 구매해 한 고등학교에 원산지를 ‘강진산’으로 속여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위

반 품목으로는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 각 6건(7.8%) 등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허위 표기가 의심 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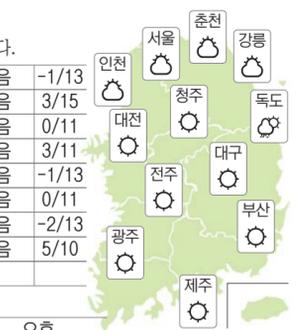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9 달뜨기 04:55  
해질 18:54 달짐 16:01

### 쌀쌀한 봄날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기온 낮아 쌀쌀하겠다.

광주	맑음	2/13	보성	맑음	-1/13
목포	맑음	3/11	순천	맑음	3/15
여수	맑음	5/14	영광	맑음	0/11
나주	맑음	-1/14	진도	맑음	3/11
완도	맑음	4/14	전주	맑음	-1/13
구례	맑음	0/14	군산	맑음	0/11
강진	맑음	1/14	남원	맑음	-2/13
해남	맑음	0/13	흑산도	맑음	5/10
장성	맑음	-1/13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안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서~북서	1.0~2.0	북서~북	1.0~2.0

### ◇ 생활지수

높음	☀️
높을중	☁️
매우 높음	☔️
감기	🌧️
보통	🌤️
미세먼지	🌫️

###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여수	목포	여수
간조	05:50	01:28	00:22	08:02
만조	18:26	14:03	13:00	20:01

### ◇ 주간 날씨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	☀️	☀️	☀️	☁️	☀️	☀️
1/15	2/18	6/19	6/21	9/20	7/16	6/17

## 오늘도 쌀쌀한 꽃샘추위... 주말 봄 기온 회복

광주·전남지역에 찬 북서풍이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까지 중국 북부지역에서 찬 북서풍이 유입돼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아지겠다”고 1일 밝혔다.

기상청은 2일 광주·전남 아침최저기온은 광주 2도, 전남 영하 1도~영상 4도로 평년(광주 4.8도, 전남 2.5~6.8도)보다 3~5도 가까이 낮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은 3일까지 평년(아침최저기온 3~9도, 낮 최고기온 15~19도)보다 2~5도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비 소식 없는 청명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말인 6일에는 광주와 전남의 낮 최고기온이 16~22 분포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일까지 확산이 원활해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보통’ 단계로 예보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전남경찰 산단 인근 도로 교통신호 개선

전남지방경찰청은 “도민 안전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찰 활동 중 하나로 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교통신호 등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국가산단·일반산단·농공단지·항만 등에 입주한 기업체와 79차레 간담회를 통해 모두 132건의 시설 불편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광양 나들목(IC) 감음 신호 및 산단 도로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등 모두 50건의 교통시

설물을 개선했다. 전남경찰청은 중장기 개선 대상인 나머지 82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개선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기적으로 기업체에서 의견을 청취, 교통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 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 10% · 용자 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경제역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기준치 5.0 부여 -

신산업부 장관 4개 단종(태양광·전력·전선·제약)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문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 신산업에 예산지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력(에)에 경쟁 노력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주 소 | 순천시 중양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